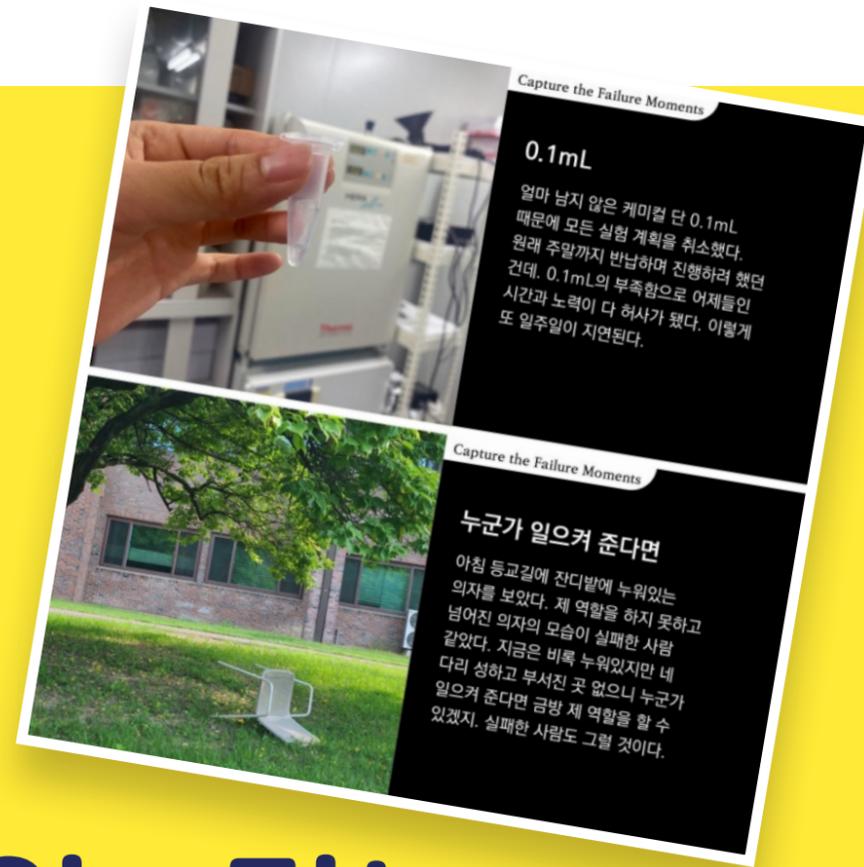


실패도 성공의 일부다!

망한 과제 자랑대회? 2023 실패주간 행사 개최

KAIST가 이색적인 대회를 연다. 바로 '실패를 뽐내는 대회'다. KAIST는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2주간을 '실패주간'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KAIST 실패연구소(소장 조성호)가 실패를 주제 삼아 처음 시도하는 행사로 전시·교류·강연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2023 KAIST 실패주간

10.23 Mon. ~
11.03 Fri.

KAIST 대전본원 캠퍼스 일대

전시 Exhibition KAISTian Photograph "Capture the Failure Moments"

일상에서 포착한 실패의 순간들
10.23.(Mon.) ~ 11.03.(Fri.)
창의학습관(E11) 1F 로비
※ 개막행사 : 10.23.(Mon.) 12:30~13:00



온라인 아카이브
online archives

교류 Exchange KAIST 실패학회 : 망한 과제 자랑대회 Failed Task Showdown Contest

11.01.(Wed.) 19:00 ~ 20:30
창의학습관(E11) 1F
※ co-hosted by ICISTS



발표자 지원
Presenter Application

세미나 Seminar 실패세미나 : 실패를 성공적으로 다루는 방법 Successful Methods of Dealing With Failure

11.03.(Fri.) 14:00 ~ 16:30
학술문화관(E9) 2F 양승택오디토리움
초청연사 : 김수안 교수, 리사손 교수



사전등록
pre-registration

KAIST FAILURE WEEK

※ 주요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께
'실패주간 굿즈'를 드립니다.



문의 _ 042-350-85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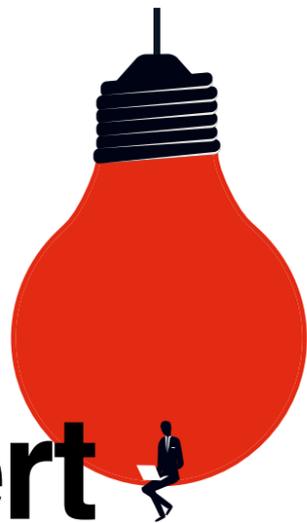
“어 너도?” 다양한 실패의 순간들

행사가 시작되는 23일에는 대전 본원 창의학습관 1층 로비에서 ‘일상에서 포착한 실패의 순간들(KAISTian Photograph “Capture the Failure Moment)”이라는 제목의 사진전이 열렸다. 일·성장·생활·회복력 등 크게 네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일상에서 실패를 느낀 순간을 포착한 사진과 당시의 생각을 기록한 메모가 함께 전시됐다.

이번 사진전에 전시된 작품들은 지난 6월 KAIST 실패연구소가 진행한 동명의 연구 프로그램에서 수집됐다. 사진을 매개로 연구 참여자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표현하게 하고 이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방법인 ‘포토보이스(photo voice)’를 적용한 연구다. 학생들이 경험하는 실패의 특성을 규명하고 건강한 개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으로 재학생 31명이 참여했다.

KAIST 실패연구소 관계자는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느끼는 실패감에는 어느 정도의 보편성이 나타난다는 사실과 동시에 같은 실패라도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수집된 360여 개의 실패 장면 중 구성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중요한 공동체적 메시지를 담은 30개의 장면을 선별해 행사 기간에 전시했다. 72개의 장면은 온라인에서 아카이브 형태로 공개하고 실패주간이 끝난 뒤에도 KAIST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온라인 포토 다이어리를 운영해 실패의 순간에 관한 이야기들을 지속해서 게시할 계획이다.



Expert Column



실패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뉴스레터의 표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공의 에너지로 바꾸는 다양한 이야기와 칼럼을 제공한다.

Capture the Failure Moments

0.1mL

얼마 남지 않은 케미컬 단 0.1mL 때문에 모든 실험 계획을 취소했다. 원래 주말까지 반납하며 진행하려 했던 건데, 0.1mL의 부족함으로 어제들인 시간과 노력이 다 허사가 됐다. 이렇게 또 일주일이 지낸다.

Capture the Failure Moments

누군가 일으켜 준다면

아침 등교길에 잔디밭에 누워있는 의자를 보았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넘어진 의자의 모습이 실패한 사람 같았다. 지금은 비록 누워있지만 네 다리 성하고 부서진 곳 없으니 누군가 일으켜 준다면 금방 제 역할을 할 수 있겠지. 실패한 사람도 그럴 것이다.

실패연구소 뉴스레터에 게재된 실패 이야기. KAIST 학부생과 대학원생이라면 충분히 공감할만한 실패 이야기를 마음에 와닿게 표현했다.

일상에서 포착한 실패의 순간들 사진전 전시 작품 예시

누가누가 ‘잘’ 망했나, 성공을 향한 일보 후퇴 자랑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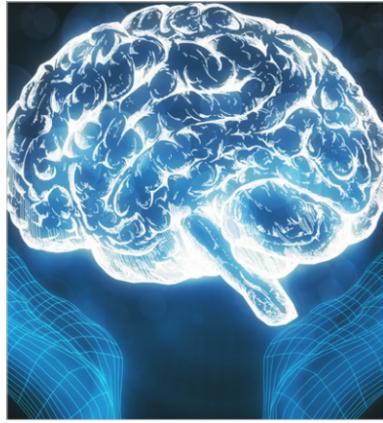
11월 1일에는 학생들이 스탠드업 코미디 형식으로 실패 경험을 공유하는 ‘실패학회: 망한 과제 자랑 대회’가 열린다. 학생동아리 아이시스츠(ICISTS)와 함께 진행하며, 재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학업 과제뿐만 아니라 연애·진로 등 인생의 과제에서 실패한 경험담을 발표한다.

‘망한’ 대회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수상 부문도 재치가 넘친다. 현장에서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사례에는 ‘인기상’을, 가장 마음 아픈 실패 경험에는 ‘마상’을, 가장 응원하고 싶은 상에는 ‘떡상’을, 가장 흥미로운 실패 사례에는 ‘연구대상’을 수상한다. 이러한 익살 덕분에 다소 경쟁적이고 성취 지향적인 분위기에 익숙한 KAIST 학생들이 유쾌하면서도 심리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동료들과 실패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실패주간 마지막 날인 11월 3일에는 리사 손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버나드 컬리지 심리학과 교수와 김수안 성균관대 심리학과 교수를 초청한 ‘KAIST 실패세미나’가 열린다. 다양한 분야 리더들의 경험과 관점을 공유하는 실패강연 시리즈로, 4회를 맞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실패를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에 대해 청중과 나눌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총괄한 조성호 KAIST 실패연구소장은 “성취와 성공으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은 KAIST 학생들의 일상과 인생 여정도 실패와 역경은 반드시 존재하며, 그 속에서 함께 배울 만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조 소장은, “캠퍼스 곳곳에 마련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실패를 성장의 자양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과 통찰력을 얻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KAIST 실패연구소는 2021년 6월 ‘QAIST 신문화 추진전략’ 조직문화 혁신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으며,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패의 두려움을 줄이고 유연한 사고와 도전정신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 연구, 캠페인 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KAISTian](#)



+ 인공지능으로 조현병 원인치료의 실마리 찾다

정신분열증으로도 알려진 조현병은 환청, 환영, 인지장애 등의 증상으로 대표되는 정신질환이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그동안 증상 억제만이 가능했던 조현병의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다.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이도현 교수 및 한국한의학연구원 공동연구팀이 미국 스탠퍼드 의과연구소와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인공지능으로 개인의 유전형과 조현병 사이의 선천적 병리 모델과 조현병 예측 마커를 발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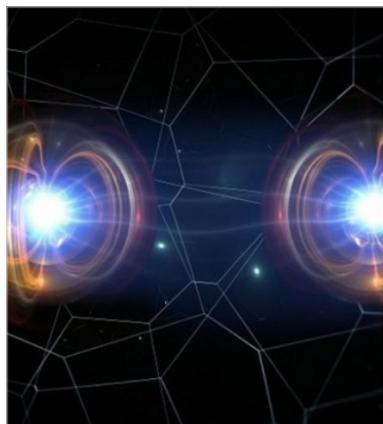
>> 더보기



+ 세계 최고 전기차 이차전지 수명 획기적 연장

KAIST 생명화학공학과 최남순 교수 연구팀이 넓은 온도 범위에서 리튬금속 전지의 높은 효율과 에너지를 유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해액 기술을 개발했다. 개발된 전해액은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솔베이션 구조를 형성했으며 안정적인 전극-전해질 계면 반응을 확보할 수 있는 첨가제 기술을 통해 리튬금속 전지의 수명 특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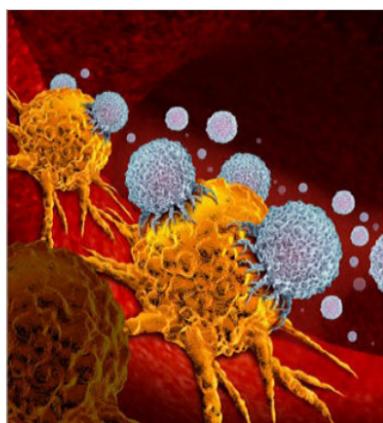
>> 더보기



+ 손상된 양자얽힘을 되돌리는 기술 개발 성공

KAIST 물리학과 라영식 교수 연구팀이 약한 양자얽힘을 양자얽힘 검증에 도입해 양자얽힘의 직접적 검증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손상된 양자얽힘을 되돌림 측정을 이용해 양자얽힘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연구팀은 양자얽힘을 완전히 파괴시키지 않는 '약한 양자얽힘'을 도입하여 양자얽힘을 검증하였고, 이 과정에서 손상된 양자얽힘을 '되돌림 측정'을 이용해 원상대로 되돌리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 더보기



+ 뇌종양 면역치료를 고 포도당 음료로?

KAIST 의과대학학원 이흥규 교수 연구팀이 교모세포종 실험 쥐 모델에서 고 포도당 음료 보충을 통해 뇌종양의 성장이 억제되는 현상을 관측했고 이에 더해 이러한 억제 효과가 장내 미생물의 특정 균주 변화를 통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항종양 면역반응을 증진한 작용원리를 규명했다. 연구팀은 고 포도당 음료와 특정 균주의 복합처리가 항암면역 치료의 효과를 더 증진함을 확인했다.

>> 더보기



+ 바이오및뇌공학과 김수지 학생, 이기현 학생, μTAS 2023 국제학회 수상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김수지 석박통합과정, 이기현 박사과정은 μTAS 2023 국제학회에서 각각 최우수 논문 발표 1등상과 바이오마이크로플루이드스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μTAS 국제학회는 이번이 27회째로 미세유체기술을 포함하여 극소형 생물, 화학 분석시스템을 다루는 국제학술대회로 올해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열렸고 전세계 39개국에서 900여명이 참석했다.

>> 더보기



+ 기계공학과 이정철 교수, 2023년 세계표준의 날 기념식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표창 수상

KAIST 기계공학과 이정철 교수가 지난 10월 12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23년 세계표준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정철 교수는 2012년부터 국내-외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여, 현재 국내 표준기술위원회/전문위원회 위원 및 IEC SC47E WG1 컨버너, TC124 부간사로서 MEMS, 센서, 웨어러블스마트 기기 관련 국제 표준 제정을 주도하고 기여해 왔다.

>> 더보기



+ 강준상·김재경·박윤수·박지민·홍성우 교수, 포스코 사이언스 펠로십 선정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연구하는 젊은 유능한 과학자들을 매년 선발해 지원하는 포스코 사이언스펠로십에 KAIST 신진 교수가 대거 선정됐다. 포스코 청암재단은 수학·물리학·화학·생명과학·금속/신소재·에너지소재 등 총 6개 분야에 걸쳐 30명의 연구자를 2024년도 펠로십 수혜자로 선정했다고 지난달 11일 발표했다.

>> 더보기



+ 강석태 교수, 제24대 대한환경공학회 회장 선출

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 강석태 교수가 지난달 21일 제24대 대한환경공학회 회장에 선출됐다. 1978년 설립된 대한환경공학회는 회원수가 11,000여 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환경관련 학술단체로, 환경공학 분야의 기술 개발, 정책 제언, 산업 활성화, 국제교류 및 교육 등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신임회장에 선출된 강석태 교수는 2015년부터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 과에 부임했다.

>> 더보기



+ KAIST 연구실 개방합니다, 'OPEN KAIST 2023' 개최

KAIST가 교내 연구·실험실 및 연구센터 등의 연구 현장을 공개하는 'OPEN KAIST 2023' 행사를 11월 2일부터 이틀간 대전 본원 캠퍼스에서 연다. 2001년에 시작돼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OPEN KAIST는 공과대학의 주관으로 2년마다 개최하고 있다. 방문객이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해 과학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미래의 과학기술을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 더보기



+ 우리 대학, 국내 최초 스프링거 네이처와 오픈액세스 계약 체결

KAIST는 스프링거 네이처와 오픈액세스 전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스프링거 하이브리드 저널에 대해 KAIST 연구자들이 출판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자유롭게 오픈액세스 논문을 출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20일 밝혔다. 출판사 스프링거 네이처는 과학기술을 비롯하여 전 학술 분야를 망라하는 글로벌 학술 출판사이며, 오픈액세스란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논문을 볼 수 있게 공개하여 자유롭게 학술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더보기



+ 인공지능 시대 예술의 경계는? KAIST 미술관 국제 심포지엄 개최

KAIST가 인공지능과 예술(AI+ART)을 주제로 10월 19일 대전 본원 대강당에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19일 열린 '인공지능과 예술 국제심포지엄'은 인공지능 시대에서 예술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묻고 이에 대한 담론을 촉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 더보기



+ SK브로드밴드와 함께 어린이 과학 애니메이션 제작

KAIST가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과학의 재미를 발견하도록 돕기 위해 SK브로드밴드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과학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 두 기관이 협력해 만드는 'KAIST와 함께하는 마음의 소리, 어린이 과학 모험 시리즈'는 과학 상식이 부족한 캐릭터들이 전문가인 KAIST 선생님을 만나 세상 속 과학 이야기를 배우는 콘텐츠다.

>> 더보기